

이 치료시스템은 폐암, 간암 등과 같이 암세포가 넓은 부위에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거나 두경부암이나 자궁경부암과 같이 주요 장기에 인접해 있는 암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윤선민 교수는 “중부권 병

원에서는 처음으로 IMRT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며 “부작용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암 치료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5. 1. 31-

## 국내 동정

### 양성자가속기 사업 ‘새 활로’

####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분리설치 특별법 마련”, “2년 표류 중지부... 지자체 사업유치 본격행보”

정부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분리해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만 2년여 넘게 장기간 표류하던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양성자가속기 사업 유치에 적극 뛰어들었던 지방자치단체들도 의사를 다시 확인하며 유치활동을 재점화할 태세다.

14일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준위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분리해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면서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재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특별법에서는 양성자가속기와의 연계를 명문화하지 않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양성자가속기 사업 입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도 분리시행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한 관계자는 “특별법에 양성자가속기 연계가 명문화돼 있지 않고 고준위와 중저준위를 분리 설치하기로 한 만큼 조만간 추진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분리 시행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밝혔다.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과학기술부가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의 하나로 지난 2002년 7월부터 추진됐는데 총 1,286억원의 연구개발 사업비를 투입, 오는 2012년까지 100MeV, 전류 20mA의 선형 양성자가속기장치를 개발해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양

성자가속기는 양성자를 가속하여 나오는 빔을 이용하는 대형연구장비로 원자력은 물론 신소재 개발 및 의료, 환경, 반도체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전문가들은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1조원의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신소재, 반도체, 환경 등의 벤처산업기반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함에 따라 당초 사업 유치를 희망했던 지방자치단체들도 유치의사를 재확인하고 있다. 주관기관인 양성자 기반공학기술개발 사업단 한 관계자는 “양성자가속기 추진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유치신청을 했던 지자체들도 직간접적으로 유치의사에 변화가 없음을 밝혀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2월말까지 이뤄진 유치기관 공모에서는 대구, 전북 익산, 강원도 철원, 춘천, 전남 영광이 유치신청을 한바 있다.

다만 분리시행이 확정되더라도 당초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입지를 결정할지 아니면 유치기관 재공모를 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사업단은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입지가 선정돼야 지연된 사업기간을 만회하고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유치희망지역을 대상으로 한 평가선정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최병호 양성자 기반공학기술개발 사업단장은 “상반기 내에 입지가 결정돼야 사업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분리시행이 조속히 확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스, 2005. 2. 15-